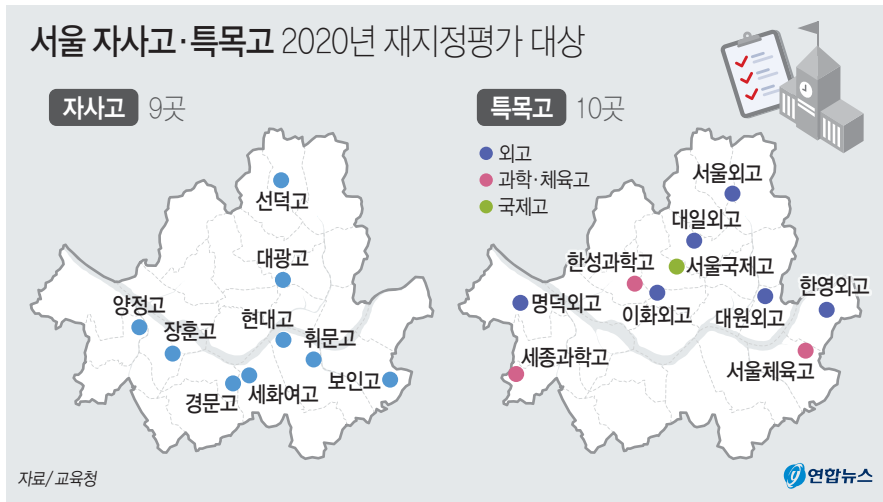


내년엔 특목고도 시험대... '文 고교체제 개편'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

내년 서울9곳 등 자사고 재지정 영훈국제중 등 특성화중 3곳 대원외고 등 특목고 10곳 평가 특목고 등 일반학교 전환 속도



올해 시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받은 학교 중 약 절반이 재지정 탈락 위기를 맞은 가운데, 시도교육감의 직권취소와 내년 특목고 대상 평가도 예정돼 있어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과제로 단계적 고교체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2019년까지 입시제도 개선 ▲2018년~2020년 단계적 전환 ▲2020년 하반기 이후 고교 체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2019학년도 고입에서 자사고를 포함해 외고와 국제고의 후기 동시모집기로 하는 등 입시제도를 손질했고, 고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일반학교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고교 체제 개편의 마무리는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2020년 하반기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 최대 5년간 20억원씩 추가 재정지원을 하는 등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후속지원책을 내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절반씩 부담해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시설 개선이나 예체능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전체 24개 자사고에 대한 11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11개교(46%)가 탈락했다. 서울에서는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하나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가 대거 탈락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청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 동의 받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 일

반고 전환이 유력하다.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은 자사고 중 상당수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스스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하고 있다.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6곳 중 전북 군산시 군산중앙고, 익산시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 등 3곳에 이어 15일 서울 경문고가 관할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네 학교 모두 올해 지원 미달 사태를 겪어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들 학교 외에도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자사고들의 모집 경쟁률은 2대 1 미만이거나, 미달을 기록하고 있어, 대다수

자사고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올해 서울지역 자사고 21개교의 신입학 지원 현황(정원 내)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7842명 모집에 852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09대 1을 기록했다. 경문고·경희고·대광고·동성고·세화여고·송문고 등 서울시내 자사고 중 절반이 넘는 12곳이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적은 미달 사태를 맞고 있다.

내년에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와 국제고도 무더기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있고, 상당수 학교가 탈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경문고·대광·보인·현대·휘문·선덕·양정·장훈·세화여고 등 9개 자사고가 재지정평가를 받고, 대구 대건·경일여고, 인천 하늘고, 대전 대성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전북 남성고 등 15개 학교가 재지정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도 평가대상 자사고 중 3곳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기지 못해 지정취소 2년 유예 결정을 받은 뒤 보완평가를 통과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향후 평가에서도 탈락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국어고와 과학고·체육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중도 대거 운영성과평가를 받는다. 서울에서만 대원외고·대일외고·명덕외고·서울외고·이화

외고·한영외고 등 외고 6곳과 서울국제고 등 국제고 1곳, 한성과학고·세종과학고 등 과학고 2곳, 서울체육고 등 특목고 10곳이 재지정평가를 받고,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서울체육중 등 특성화중학교 3곳도 평가 대상이다. 서울 외고와 영훈국제중의 경우 4년 전 평가에서 기준점(60점)에 미달한 점수를 받았으나 지정취소 2년 유예 결정과 2년 뒤 재평가를 받기로 했었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지정평가 외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 교육 시민단체가 서울 자사고 9곳이 지난해 수험시험에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의혹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법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자사고에 대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퇴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투스 입시설명회.

/뉴시스

이투스 '댓글조작' 혐의 재판... 스타강사 연루

5년 동안 경쟁사 비난 댓글 혐의로 김형중 대표 등 임원 3명 불구속 기소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교육(이투스) 대표가 경쟁사 강사를 비난하기 위해 '댓글 알바부대'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강사 백인덕·백호씨도 이 같은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정모 전무 등 임원 3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김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 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물·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G사의 지시를 받은 댓글부대는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수만위, 오르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백브라더스'

로 불린 유명 강사 백인덕·백호씨도 악성 댓글 달기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투스의 댓글 홍보 논란은 그간 여러 차례 불거졌다. 이투스는 2007년과 2011년, 2017년 댓글 알바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이투스 소속이던 우형철씨가 2017년 1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 등을 비난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우씨의 폭로가 이어지자 학부모단체인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은 "이투스에서 강의했던 설민석·최진기씨도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투스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정모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수사 결과 이투스의 조직적 댓글홍보 행위는 사실로 드러났으나 설씨 등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현경 기자 son89@

SK·CJ·LG... 대기업 신입공채 9월 '집중'

지난해 절반 이상 9월 중 서류접수 평균 14일간 모집... "미리 파악을"

올해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절반 정도가 오는 9월 지원자 모집을 시작해 9월말 이전에 서류접수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잡코리아는 작년 하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한 대기업 245곳의 신입공채 모집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예상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모집은 9월에 서류 접수를 시작한 기업이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10월 서류접수를 시작한 기업이 16.7%로 많았고 ▲12월(11.4%) ▲8월(11.0%) ▲11월(5.3%) 순이었다.

서류접수 마감 월도 9월이 55.9%로

한성대

학생 300명 농촌봉사활동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14일~18일까지 5일간 충청북도 충주시 8개면 19개 마을에서 '2019년 하계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은 도시화로 젊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획됐다. 한성대 총학생회가 참여학생을 모집한 결과 500여명이 지원했고, 선착순으로 접수한 학생 250명과 통솔·책임 학생 대표 50명 등 300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농가를 방문해 사과, 복숭아, 토마토, 옥수수 등의 작물에서 부실한 열매를 수확내고, 수확하기에 적합한 열매는 잘라내는 활동을 한다. /한용수 기자

과반수 이상이었다. 작년 하반기 신입공채를 진행한 대기업의 절반 정도가 9월 중 지원자 모집을 시작해 마감까지 진행한 것이다. 이어 10월 서류접수 마감 기업이 17.6%로 많았고, ▲12월(12.2%) ▲11월(9.4%)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포문을 연 기업은 KT그룹으로 지난해 8월 28일 모집을 시작해 9월11일 서류접수를 마감했다. 올해부터 신입공채 수시 채용을 도입한 현대자동차도 작년 하반기에는 8월말 모집을 시작해 9월10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다.

신입직 그룹공채를 진행하는 ▲SK그룹은 지난해 9월3일~14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고 ▲CJ그룹은 9월5일~17일까지 ▲롯데그룹은 9월5일~18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다. 계열사별 공채

를 진행하는 삼성그룹은 9월5일~14일까지, LG그룹 계열사는 9월3일 전후 지원자 모집을 시작해 9월17일 전후 마감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 대기업 신입공채 모집기간은 평균 14일이었다. 모집기간이 가장 짧았던 기업은 샘표식품으로 작년 10월8일~12일까지 5일간 지원자를 받았다. 모집기간이 가장 길었던 기업은 DB그룹으로 9월1일~10월1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대기업 신입공채 모집시기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 모집 시기를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취업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중앙대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선정

중앙대는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정테마 지원과제 중 2개 과제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중앙대 기계공학부 이형순 교수 연구팀의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이기욱 교수 연구팀의 '초소형 가변중력보상모듈 일체형 설계를 통한 차세대 소형 액추에이터 개발' 프로젝트다.

이형순 교수 연구팀의 프로젝트는 반도체 소자 구조와 소재를 획기적으로 차별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3년간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기욱 교



이형순 기계공학부 교수 이기욱 기계공학부 교수

수 연구팀은 로봇, 기계장치 및 다분야의 소형화 및 경량화, 원가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3년간 총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